

아담과 하와

-두 번째 이야기-



11Page

- 나 레 이 셴** 에덴동산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온갖 나무와 꽃들이 가득했어요. 동물들도 사이 좋게 지냈어요. 에덴동산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 하 나 님** 에덴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의 과일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 아 님**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12Page

- 나 레 이 셴** 혼자 사는 아담의 외로움을 아신 하나님은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별거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13Page

- 나 레 이 셴**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 뱀** 저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 하 와** 아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셨어.
- 뱀** 에이, 아니야. 한번 먹어 봐!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될까 봐 그러는 거야.
- 하 와** 그게.. 정말이야?
- 뱀** 그렇다니까! 저 열매를 봐.. 얼마나 탐스러운지.. (쉬익 쉬익..)
- 나 레 이 셴**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죄를 짓게 하려는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열매들이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14Page

그래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 나 님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 님 하나님, 하와가 제게 주어서 먹은 거예요.

하 나 님 하와야, 왜 그랬느냐?

하 와 하나님, 뱀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나 레 이 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15Page

하 나 님 너는 평생 배로 땅 위를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큰 고통이 함께 것이다!

아담아, 이제는 땀 흘려 일해야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 레 이 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돌보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슬프게 에덴동산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